

# AI 세계적 권위자들 광주로... 인공지능 현재·미래를 보다

국제 학술대회 '아이콘 광주' 내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 개최  
美 코넬대 다니엘 리 교수 기조 강연...토론·전시 체험 등 다채

세계적 AI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인공지능학술대회 '아이콘(AICON) 광주 2023'이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에서 강기정 시장과 정부청 시의회 의장,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콘(AICON) 광주 2023' 개막식을 진행했다.

'아이콘 광주 2023'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비즈니스 혁신,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아이콘 광주 2023'에서는 세계적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강연, 공개 토론회, 발표회, 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

행사 첫날인 이날에는 인공지능 권위자인 미국 코넬대학교 다니엘 리 교수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현재의 발전과 미래의 기회'를 주제로, IBM 아시아태평양지역 산커 V 셀바드라이 부사장이 '믿음직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기조강연 이어 '인공지능 4 굿(AI 4 GOOD)' 공개 토론회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이태준 한국연구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AI)정책전략대학원 추진단장 등이 참여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인공지능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행사 이틀차인 2일에는 구글의 조슈 사벨 메사(MESA) 플랫폼 총괄과 자이스(Zeiss) 코리아의 매튜 윌슨 부사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초거대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창업 동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현안과 사례를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로빈 콜먼 대표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모빌리티(AI+XM), 인공지능 헬스케어(AI+XH) 강연 분과를 비롯한 대한민국 4대 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KAIST)·유니스트(UNIST)·디지스트(DGIST)·지스트(GIST)가 함께하는 인공지능 엑시스트(AI+XIST) 등 미래 인공지능의 미래를 전망하는 강연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자율주행로봇 무인매장, 인공지능 기반 지하차도 침수예측 감시체계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들의 제품 전시 체험공간과 열지



강기정 광주시장(1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희관에서 열린 글로벌AI컨퍼런스 'AICON 광주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청 광주시의회 의장, 주기환 국민의 힘 광주시당 위원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LG)전자 파블리온의 특별 홍보관도 만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개막식 행사에서 "광주는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보다 앞서 인공지능(AI)산업에 주목했고 투자해 왔다"며 "AI산업에서 기업과 민간참여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만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도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학교군 외 배정 중학생에 통학버스 지원해야”

김나운 광주시의원 촉구

광주시의회 김나운(더불어민주당·북구6) 의원은 1일 “학교군 외 학교에 배정받은 중학생들에게 시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광주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중 학교 외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 수는 282명이며, 이 중 207명이 북구 건국·양산·신용동 거주 학생들이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학교 한 곳의 전교생 수에 맞먹는 학생들이 학교 외 지역에 배정된 셈이다”면서 “안전한 통학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



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440명이 학교 밖으로 통학하고 있고, 신설 중인 용두2 초등학교까지 개교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면서 “작은학교와 병설 유치원에 집 중된 통학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어떤 대책도 없이 학교 배정 발표 후 알아서 다니라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학교 내 배정이 어려운 지역을 시범지구로 정해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섬 지역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 시급”

이철 전남도의원 촉구안 채택

이철(민주·완도 1) 전남도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 37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고 섬 지역에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조속한 관계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완도 청산면과 여수 삼산면의 경우 2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섬이지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제외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이 전혀 없다”며 “연륙·연도교도 없어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산면의 경우 편도 50분, 삼산면에서는 편도 2시간 55분이 소요되는 배편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섬 지역은 주민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암 등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 같은 응급상황 발생 우려도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지만 현재 섬 지역 공공의료체계만으로는 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섬 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의 대표 건의로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채택된 촉구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여론 조성

오늘 무안서 강연...찬성 여론 증가 속 이전 필요성 등 강조

전남도가 민간·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전하기 위해 무안군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1일 전남도의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는 등 사실상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담보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무안군민들에게 동시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남도는 2일 오후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무안 남악·오룡 신도시 도민을 대상으로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필요성 등을 알리는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는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최용선 전 선임 행정관이 ‘미래 세대를 위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이란 내용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한다.

최근 언론사 주관으로 실시한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여론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무안지역 찬성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무안 국제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영향이 극히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부 지역에서 예상 외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군 공항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오해, 주

변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돼 올바른 정보 전달의 필요성 등이 다시 대두됨에 따라 마련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군 공항에 대한 왜곡 정보 바로 알기’ 내용만을 강연했으나, 올 상반기 이후 무안지역 찬성 분위기가 다소 고조되는 분위기가 있는 점을 감안,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필요성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강연에 추가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와 무안군의 숙원인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활성화와 장애 서남권 미래 발전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이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강연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부터 군 공항 이전 바로 알기 캠페인, 도민 강연회, 도청 전 직원 대상 포럼, 공중과 자막 및 영상 캠페인 광고 등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외국인 숙련 근로자 추천하세요” 광주시, 다음달 15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가점(30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자격의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자,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등 4개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추후 단계적으로 영주권 전환도 가능해져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장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광주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에 전자우편(e-mail)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